

김영원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

10월 28일 용산에서 개관한 새 국립중앙박물관은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는 열린 박물관으로 꾸며졌다.

그동안 박물관의 전시 용어를 비롯하여 문화재 관련 용어들은 비전문가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많았다. 문화재의 이름이 ‘청동은입사포류수금문 정병, 은제도금타출표형병’처럼 한자어 일색이어서 읽기조차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 2년 동안 애써 온 전시 용어 개선 사업의 결과, ‘유개고배’는 ‘굽다리접시’, ‘대부장경호’는 ‘목항아리’, ‘분청사기 삼감연당초문병’은 ‘분청사기 연꽃넙쿨무늬병’, ‘청동은입사포류수금문정병’은 ‘물가풍경무늬 정병’, ‘은제도금타출표형병’은 ‘넙쿨 무늬를 도드라지게 새긴 병’, ‘청자과형병’은 ‘참외 모양 병’, ‘강산무진도’는 ‘끝없이 펼쳐진 강과 산’, ‘몽유도원도’는 ‘꿈속에 여행한 복사꽃 마을’, ‘영산회상도’는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석가모니불’, ‘초조본 유가사지론’은 ‘유가 수행의 17단계를 논한 글’, ‘구족반’은 ‘개다리소반’ 등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쉽고 친근한 이름으로 바뀌었다.

전시 용어들을 쉽고 편한 우리말 중심의 용어로 대폭 다듬는 일은 우리 역사를 관람객에게 정확하게 알리며, 박물관을 평생 학습 기관으로 운영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유물의 이름이 쉽게 되어 있으면 한 번 보고 간 학생들이 머릿속에 유물의 모습이 오래 기억될 것이다. 또한 가족이 함께 왔을 때 어른들이 아이에게 하나라도 더 이야기하고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11월 10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가 전시 용어를 쉽게 다듬는 데 애쓴 김영원 미술부장을 만나 보았다. ---편집자 주

답변자 : 김영원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

질문자 : 이명신(지식공작소/박영률출판사 기획팀장)

때 : 2005년 11월 10일

곳 :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실

이명신 안녕하세요? 박물관 이전 축하드립니다.

김영원 감사합니다. 좀 둘러보셨나요?

이명신 그럼요. 널찍하고, 그동안 못 보던 유물도 볼 수 있어서 좋네요. 전시 시설이 좋으니 유물이 더 멋져 보였고요.(웃음) 그런데 이전한 지 얼마 안 돼서 바쁘시죠?

김영원 네, 정신없어요. 관람객도 많고, 연말까지 마쳐야 하는 과제가 다섯 개나 돼서요. 외국에 만들어 보내야 하는 도록도 있고, 박물관에서 일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이명신 그런 것까지 직접 만드신다니, 정말 쉴 틈이 없으시겠네요. 지금까지는 전시 용어 개선 사업으로 바쁘셨을 텐데.

김영원 전시 용어 개선 사업은 특별히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지요.

이명신 공무원들은 시키는 일만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웃음), 이번 전시 용어 개선 사업도 무슨 지시나 민원에 따른 건가요?

김영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요. 이번 일도 내부에서 먼저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전시 용어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니 좀 쉬운 말로 바꾸자고요.

이명신 전문가들에게는 익숙했을 전시 용어가 어렵다고 느꼈다니 믿기 어려운데요, 관람객이 전시 용어를 알기 쉽게 써 달라고 제안한 것은 아닌가요?

김영원 그런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요. 하지만 전문가라고 해서 전시 용어를 쉽게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대학 시절 접한 고고학과 미술사학 용어가 너무 어렵다고 느꼈는걸요. 워낙 오랫동안 공부하다 보니 지금



▲ 인터뷰 모습(김영원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

좀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를 가장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은 날마다 문화재를 연구하고 접해야 하는 저희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명신 그렇군요. 그런데 용어가 어려운 것이 한자라서 그런 건가요?

김영원 일반인에게 어려운 것은 주로 한자 때문일 거고요, 전공자들에게 어려운 점은 사실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한자 용어 때문이에요. 특히 저는 전공인 도자기 분야를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한자 용어를 접하면서 너무 어렵고 낯설어서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자 용어 하나 해독하려면 도서관을 다 뒤져도 모자랄 판이니까요. 도서관을 뒤져서 답이 나오면 다행이죠. 직원들도 모두 저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진 거지요.

이명신 생각이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천이 중요하잖아요. 언제부터 정식으로 전시 용어 개선 사업을 시작하셨지요?

김영원 2002년부터 약간의 실험이 있었지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니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어요. 설부르게 바꿨다가 혼란을 초래한다거나, 전문가들에게조차 어려운 생소한 말이 더 생겨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죠. 그래서 조금씩만 해 보기로 했어요. 일부 전시물에만 쉬운 제목을 붙여 봤고, 또 ‘토요 명품 감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관객들에게 쉬운 말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죠.

이명신 관객들의 반응에 아주 민감했겠네요.

김영원 그랬지죠. 그런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실무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관객 반응이 좋았습니다. 제가 2004년 1월부터 여기(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작업에 투입됐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고증을 시작했죠.

이명신 고증이라뇨? 쉽게 풀어 쓰면 되는 것 아니었나요?

김영원 그저 쉽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른 용어를 찾는 것도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였어요. 그건 전문가들에게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종'의 한자 표기를 할 때 어떤 경우는 우측에 ‘무거운 중’ 자를 쓴 종(鍾)을 쓰고, 어떤 경우에는 우측에 ‘아이 동’자를 쓴 종(鐘)을 썼거든요. 그렇다고 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한자를 쓸지에 대한 무슨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명신 그러네요.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이야 아이와 얽힌 전설이 있어서 그렇다 치고, 봉선사 대종도 아이동자를 썼네요.

김영원 그렇지요. 또 탁본(拓本)이라는 것도 문헌을 뒤져 보니 탐본(榻本)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과연 어떤 것이 맞는지, 일제 강점기에 혹시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한자로 뒤바뀐 것은 아닌지, 또 사발(沙鉢), 완(碗), 발(鉢)은 뭐가 다른지, ‘불(佛)’이라고 할지 ‘부처’라고 할지, 이런 것들을 고증하기 위해 자문 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밤을 새워 가면서 관련 문헌

을 다 뒤졌죠.

이명신 오랫동안 익숙하게 써 온 것을 바꾸고 통일하자는 것이니 학자들 간의 이견 조정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김영원 정말 어려웠어요. 전시 용어 개선 작업에는 문화재위원장을 비롯해 미술사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모두 여덟 차례 회의를 했는데, 제가 회의마다 사회를 봤어요. 논의 과정에서 학자마다 견해가 엇갈려 격론이 벌어졌고, 일부 용어들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남겨 두기도 했습니다. 용어 정리 필요성을 공유하는 문제에서부터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모두가 찬성하는 안을 내기까지 모두 만만치 않았어요. 전문가들이 자기가 쓴 책을 기준으로 주장을 하면 정말 설득하기 힘들거든요. 제가 미술부장이라고 부장 맘대로 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웃음) 자를 것은 잘라 가면서 회의를 신속하게 진행했죠. 다행히 회의 중에 모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이명신 그렇다면 이번 전시 용어 개선 사업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 셈이네요.

김영원 네. 전문 학술 연구에 정확성을 기하는 방향, 그리고 그 성과를 대중화하는 방향, 이렇게 두 가지였지요.

이명신 한자어를 쉬운 말로 풀어서 쓰는 것은 성과를 대중화하는 작업이었을 텐데, 그 작업은 좀 수월했나요?

김영원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요. 전문 용어로 쓰이는 한자어를 쉬운 한자어나 순 우리말로 풀어 쓰면 아주 길어지잖아요. 그걸 그대로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 무얼 기준으로 할지 결정해야 했지요.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없어요. 서예 작품의 경우 작가와 서체가 중요하지만 옛날 도자기는 작가를 알 수 없지요. 그래서 부서별로 작업하기도 하고 통합해서

작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도자기 종류는 무늬, 형태, 용도를 표기하는 방향으로, 미술 작품은 미적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설명 방침을 정하는 등 특성에 맞춰 기준을 정했죠.

이명신 예, 특히 서예나 회화 작품에서 전시 용어 개선 사업 결과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강산’이나 ‘춤추는 아이’ 같은 거요.

김영원 그런 것은 한자 제목을 그대로 풀어 쓴 경우입니다. 작품에 시문이 적혀 있을 경우에는 그 시문을 활용해서 제목을 뽑기도 했지요. 서예 작품의 경우 용어 개선 효과가 특히 큰 데, ‘김정희필묵소거사자찬’을 풀어쓰면 ‘추사 김정희가 쓴 자신의 별호(別號)에 대한 글’이 되니, 아주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이명신 이해하기 쉬울 뿐 아니라 더 멋진 느낌도 드네요. 그런데 바뀐 용어에서 아쉬운 점도 있어요. 함축적인 이름이 아니라 그저 모양만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도자기 분야에 그런 것이 많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 ‘분청사기 상감 인화 용문 호(粉靑沙器 象嵌 印花 龍文 壺)’라고 하면 도자기의 재질, 기법, 무늬를 다 알 수 있는데 그저 ‘용무늬 항아리’라고 하니 좀 허전하지 않나요?

김영원 (웃음) 그런 감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죠. 예를 들어 분청사기의 경우 분청사기 방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 그 방에 있는 도자기의 재질이나 기법은 모두 분청사기지요. 설명 카드에 중복해서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만일 분청사기가 그 방이 아닌 다른 곳에 전시되는 경우에는 이름에 분청사기를 덧붙였어요.

이명신 아 그런 방법을 쓰셨군요. 하지만 여전히 함축성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원래 이름에는 인화(印花)라고 하여 꽃문양도 언급하잖아요.

김영원 한자를 다 그대로 번역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진지한 얼굴로)

그런데 그건, 좀 다른 이야기예요. 사실 조선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한자 문화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는 한자를 거의 모르니 어쩔 수 없이 전시 용어를 한글 중심, 쉬운 우리말 중심으로 바꾼 거예요.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요.

이명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건가요?

김영원 그런 면이 강하지요. 그래야 젊은 층이나 한자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도 박물관에 올 거고, 또 와서 뭔가 배워서 갈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우리의 전통문화에 관심이 있고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한자를 배웠으면 해요. 저 역시 한자를 공부하기는 어렵지만, 옛 문화가 거의 다 한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깐요.

이명신 예, 얼마 전에 한문 번역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일제 시대 때문에 엄청난 역사 단절을 겪게 됐다고요. 한문을 자유자재로 하는 분들이 그 시기를 거치면서 나이가 들어 버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지식이 전달되지 못하면서 우리 문화유산을 제대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의 수가 대폭 줄어든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어요.

김영원 그래요. 국어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한자도 전통 문화유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자세도 중요하지요.

이명신 아, 이런! ‘한글 전용’과 ‘한글 한자 혼용’ 논쟁으로 비치면 곤란한데요. 이거 ‘새국어생활’ 인터뷰인데…….(웃음) 이제 전시 용어 개선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볼까요? 각 분야가 다소 다른 방식으로 개선 사업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김영원 자체 개선안을 먼저 마련해 보도록 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도자, 금속, 불교 조각, 목칠, 서예, 회화, 불교 회화 등 분야별로 특성이 강하거든요. 자체적으로 만든 안을 서로 돌려 보면서 평가하고 수정하도록 했지요.

이명신 그래도 공통된 원칙은 필요했을 텐데요.

김영원 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을 확정했습니다.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다’,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풀어 쓴다’, ‘어려운 학술 정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이미 널리 알려진 제목은 그대로 둔다’ 등입니다.

이명신 그런데 사실은 원칙을 정하는 것보다 원칙에 벗어나지 않게 실제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김영원 그렇지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어떻게 하면 학술·문화적 의미를 더 하는 용어를 선택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유물과 문화유산의 격을 높이는 데는 전시 용어도 일조를 하거든요. 서예실의 경우 서예가의 이름을 적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이 많았답니다. 작품 제목도 적어야 하고, 거기에 서예가 이름까지 적으면 전체 제목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이 분야에서는 누가 썼는가가 중요한 정보이므로 붙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번엔 ‘선생’을 붙일지 말지가 고민이었죠. 붙이지니 과공비례(過恭非禮)라 하지 않을까 걱정되고, 안 붙이지니 예(禮)가 아닌 것 같고 권위주의적이어서도 안되지만 만만해 보여도 안 되고. 결국 ‘선생’이라고 붙이긴 했지만, 생각보다 사소한 일로 골치를 많이 썩였습니다.

이명신 하하. ‘선생’에 대한 관객 반응이 어땠나요?

김영원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해요. ‘선생’도 작가명의 일부처럼 생각하는지는 몰라도(웃음), 관객들도 아무게 선생이라고 부르니 전체 품격도 올라가는 것 같고. 다행이죠 뭐.

이명신 그런데, 공예·도자기 분야에는 미결 상태인 이름이 많다고요?

김영원 ‘미결’이라……. 전시 용어가 미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

가들의 용어에서 미결 상태로 남은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전시 용어는 개선 원칙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력과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계속 바뀌기만 하면 돼요. 다만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논란이 되던 용어는 어느 하나로 결정되지 않은 것도 있었죠. 전문가들이 각자의 논문이나 저서에서 써 온 용어도 각각 다르구요. 그런데 그런 용어는 영원히 미해결로 남을 소지가 있어요. 꼭 통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이명신 그러면 전시 용어 개선 사업은 마무리됐다고 봐도 되나요?

김영원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토기 등 다른 분야로도 확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미술품 관련 명칭을 주로 개선한 상태인데 설명까지 개선할 것인지 개선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고민해가야지요.

이명신 이번 일로 국립중앙박물관은 공공 기관이 고객 중시 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무언지 모범을 보여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관공서, 특히 국회, 법무부, 법제처 등 법률 관련 국가 기관에서도 이런 것을 따라했으면 하거든요.

김영원 저희 경험으로 봐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웃음)

이명신 그 쉽지 않았던 이유 가운데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발생한 것은 없었나요?

김영원 음……. 글썄요. 아, 맞춤법 때문에 좀 고생을 했어요. 지금 우리 박물관에 하루에도 수만 명이 찾아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불 설명 카드 맞춤법이 틀리면 망신이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여러 차례 교정을 봤고, 국어 관련 기관들에 조언을 구하기도 했죠. 참, 국립국어원에도 갔다 왔어요.(웃음)

이명신 아아……. 그렇군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웃음)

김영원 그런데 저도 잘 몰랐는데, 학자들 간에 감수 결과가 좀 달리 나오는 것이 많아서 애를 먹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 띄어쓰기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다녀올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게다가 기관에서 추천한 말이 우리들에게는 정말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명신 그래요? 학자들 간의 이견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래도 나름 대로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영원 외국의 인명, 지명 따위를 한글로 적는 외래어 표기에서 원음을 따르느냐 영어 발음을 따르느냐 하는 문제로 학자들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은 원음을 따르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지요. 그런데 전시 용어의 표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배운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음새’는 ‘두 물체를 이은 모양새’라는 뜻이고, ‘두 물체를 이은 자리’의 뜻으로 쓸 때에는 ‘이음새’ 대신에 표준말인 ‘이음매’를 써야 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웃음)

이명신 예, ‘짐작과는 다른 일’이 날마다 쓰는 말에도 있다니까요.

김영원 맞아요. 하여튼 그렇게 수도 없이 손을 봤지만, 그래도 오자가 나왔습니다. 전시 용어를 바꾼 뒤로 관객들이 얼마나 열심히 설명 카드를 읽는지, 오자를 찾아내서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명신 예, 저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까지 지적해 준다고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이, 박물관 직원들은 관객 반응을 어떻게 체크하나요? 전시장에 나가 계실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김영원 주로 자원 봉사자들에게서 들어요. 관람객들이 하는 질문이나 주고받는 말들을 전해 들으면서 짐작을 합니다. 설문 조사를 하기도 하고, 가끔은 직접 나가 보기도 합니다. 아 참, 전에 어떤 어른신이 전시 용어 설명 카드가 너무 작아서 읽기 어렵다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명신 아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점은 개선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알고 계시네요?

김영원 예. 다만 아직은 개선안을 뚜렷하게 세우기 어렵습니다. 설명을 무한정 키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시물과 비례도 생각해야 하고, 전시물보다 설명 카드가 돋보이면 좀 이상하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시 용어 카드에서 많은 정보를 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다 들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각 전시실 입구에 따로 설명을 붙여 둔다든가 하는 방식을 쓰고 있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요. 그러니 관람객들이 관심 있는 유물에 관해서는 스스로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면 좋겠어요.

이명신 예, 박물관에서 관람객에게 다가가기 위해 많이 노력했으니까 관람객 쪽에서도 조금은 노력해 주어야 이쪽에서도 보람을 느끼겠지요.

김영원 뭐,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더할 수 없이 고맙지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관람객으로서는 유물을 바르게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박물관 설명 카드의 수준도 높아질 수 있지요.

이명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참외 모양 병을 보고 ‘응, 참외 모양 말 되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그 당시에 선비들의 생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더 좋겠지요.

김영원 그렇습니다. 박물관의 역할은 단지 문화재를 보관하고 구경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거

든요. 적어도 그 계기를 마련하는 거지요.

이명신 그렇지요. 역사책에서는 평면적인 지식을 주는데, 이곳에서는 입체적인 지식을 줌으로써 역사적 상상력도 자극할 수 있고요. 아무튼 이번에 전시된 유물의 본래 명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전문가들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다듬는 의미 있는 작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을 즐겨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김영원 네, 전시 용어가 쉬워진 만큼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명신 앞으로 전시된 유물의 명칭, 설명, 안내 책자 등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수준별로 개발하고 보급한다면 학생들에게 국립중앙박물관은 더욱 유익한 교육 공간이 될 것입니다.

김영원 대국민 문화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우리의 문화유산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 용어와 설명문을 다듬는 일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명신 예, 계획하시는 대로 일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원 여기 찾아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